

‘無明’ 밝힌 오색찬란한 연등물결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축제 제등 행렬·대동한마당 등 봉축열기 가득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연등축제가 시민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법등(法燈)으로 서울 도심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문화축제인 연등축제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조계사 앞 거리와 종로 일대에서 거행됐다.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가한 이번 연등축제는 2일 강남 봉은사에서 개최된 전통등전 시회를 시작으로 3일 저녁 조계사와 인사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야제(연등놀이)를 거쳐, 4일 본행사인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 제등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4일 오전 9시부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나눔의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외국인 등 경연대회, 사찰음식 체험, 대만 이익단 공연,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시연, 전래놀이

마당 등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5만 명이 함께 어울린 흥겨운 마당놀이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법회가 봉행됐다.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 영겁의 세월을 견디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증생(證生)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자”면서, “그 서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 힘차게 행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남북공동 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불심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統)의 자명(自明), 법등(法燈)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實踐)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사바세계 모

든 중생이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 마음 속 청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기원문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을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소서”라고 기원했다.

연등법회가 끝난 7시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한 10만개의 제등행렬이 탑골공원을 거쳐 종각까지 화려한 빛의 물결을 이뤘다. ‘사천왕등’, ‘사자등’, ‘코끼리등’, ‘수월보살등’, ‘들리캐릭터등’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과 불자들이 직접 만든 오색 등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특히, 이번 제등행렬에는 2000여명의 외국인이 동참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

끝으로 저녁 9시 30분부터 종각 사거리에서는 김수철, 김현성과



5월 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사진 위)와 종로거리의 제등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우리나라, 박애리 등이 함께 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강술래와 꽃비가 어울려 대중들이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이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시청 앞 광장을 비롯 주요 지역에 1만개의 가로연등을 직접

“조화로운 세상 함께 만들자”

교황청·기독교교회협 봉축 메시지 발표

교황청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는 1일 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전하는 ‘지구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란 제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언제나 자연을 매우 존중해왔고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며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선구

자가 되자”고 덧붙였다.

KNCC도 같은 날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강조하며 축하했다. KNCC는 “모든 종교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치점이 있다”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종교간 대화와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희망을 전하는 일을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4월 3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한 '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사진=박재완 기자

“반야의 정치로 세상 이끌어주길”

18대 불자 당선의원 축하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4월 30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초선 권영진(한나라당) 김효재(한나라당) 조문환(한나라당) 현기환(한나라당) 의원과 재선 강길부(무소속) 강창일(통합민주당) 안홍준(한나라당) 유기준(무소속)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3선 최병

국(한나라당) 추미애(통합민주당) 의원, 4선 이해봉(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의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반야의 정치로 세상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국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4선 이해봉 의원은 “‘사바의 연꽃’이 되어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다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점 어시어문

부산지사: (05)1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2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권익현·김태영·고두심씨 선정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지관)는 4월 30일 '불기 2552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권익현·김태영·고두심씨를 선정했다.

권익현 前 국회의장 회장은 국회의원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정각선원 국회 개원, 경찰서 경승 법사제도 실현 등 불교계 권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군불교총신 도회 회장으로서 군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민·군 불교 유대강화를 통한 군불교 진흥과 발전에 기여했다.



권익현씨 김태영씨 고두심씨

탤런트 고두심씨는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바람직한 불자상을 통해 불법홍포에 앞장섰다.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되는 등 오랫동안 불자연예인다운 신행으로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시상식은 1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때 함께 진행된다.

김성우 기자

첫 불교 애니 '붓다' 조계종 포교원 제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최근 종단 첫 불교 애니메이션 '붓다'를 개발 제작했다.

포교원은 4월 29일 '붓다' 완성을 알리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선언” 2년차에 종단에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도해 드디어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붓다'는 지난해 안국선원과 화성 신홍사에서 지원한 포교후원기금으로 1년만에 제작됐다. 16:9 디지털메타 방식 고화질(H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김강진 기자



동국대 새 UI 제작·선포식

개교 102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새로운 대학통합이미지(UI)를 제작해 7일 개교기념식과 함께 UI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변경된 UI 중 권위상징로

고(authority logo)는 각종 증명서, 학위기, 법적서류 등 학교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된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로고(communication logo)는 팔정도(八正道)와 무량광을 의미하는 여덟 갈래 빛의 중심에 동국대를 상징하는 'D'를 형상화했다. 조동섭 기자

▲사회
취재부장 김재경 4월 21일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 총재 한국불교태고종 운산
- 부총재 대한불교일승종 혜정
- 부총재 대한불교무량종 혜안
- 대원장 해동불교임제종 지암
- 부대원장 한국불교조계종 보현

- | | | | |
|-----------|----|------------|----|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법장 | 대한불교약불종 | 보각 |
| 한국불교대승조계종 | 법광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 덕산 |
| 대한불교무상조계종 | 대광 | 대한불교위양종 | 위산 |
| 금강불교조계종 | 해명 | 한국선불교조계종 | 도경 |
| 대한불교연화종 | 청호 | 한국불교원각종 | 자오 |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 능인 | 대한불교도천종 | 원광 |
| 세계불교법왕종 | 구천 | 세계불교법사종 | 향운 |
| 해동불교무량종 | 학성 | 한국불교천태종 | 원당 |
| 대한불교불교종 | 화담 | 대한불교천지종 | 대명 |
| 한국불교원효종 | 법민 | 대한불교일월종 | 대원 |
| 대한불교삼계종 | 일초 | 대한불교승각조계종 | 수덕 |

■ 행정실: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TEL 055)331-7901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